



선물이었다

이화중 3-3 오서연

오늘은 따뜻한 사랑에 힘입어 태어난

선물의 날, 한글날

과거에 한 사람의 마음으로 오밀조밀 송편처럼

빚어진 한글, 현재의 소중한 선물

28개의 아이들이 태어나 더없이 우리를 기쁘게

해주는 작고 순수한 우리의 문자

마냥 아기 같았던 자음과 모음은 어느새 581년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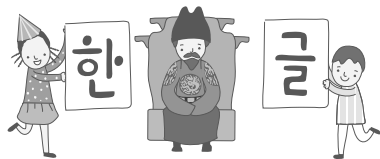
세월이 흘러 흔들의자에 앉아 나에게 주름진 얼굴로

환히 웃어주던 할머니가 되었고

손자, 손녀를 보며 내 사랑스러운 아가라고 하시며

부모의 마음으로 돌봐주시는 할아버지가 되어

우리도 모르게 공기처럼 스며들었다.



우리의 선물은 모두의 것이었고 모두가 사용하며
후세에도 쓰일 우리만의 고유한 문자,
한글이었다.

당연시하게 여기고 사용하며 어느 순간
그 소중함을 잃어버렸다.
내가 한글로 선물을 창작하니
비로소 깨달았다.

우리가 알고 있지만 몰랐던 따뜻하고
더없이 벅차오르는 이 선물은
한글이라는 것을.

한글이라는 선물로 또 하나의 선물을
만드는 오늘, 한글의 소중함과 그 감사함에
기쁨의 눈물을 흘린다.